

손흥민 골은 한국축구의 '역사'가 된다

유럽통산 122·123호골 작렬... '차붐' 넘어 새 역사 달성 '고메스 부상' 충격 딛고 챔피언스리그 원정서 멀티골 '기도 세리머니' 손흥민의 2골 1도움에 토트넘 4-0 완승

손흥민(토트넘)이 정신적 충격을 딛고 유럽 프로축구 통산 한국인 최다골 신기록을 세웠다.

손흥민은 7일 오전(한국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라이코 미티치 경기장에서 열린 토트넘 베오그라드(세르비아)와의 2019-2020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B조 4차전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토트넘이 1-0으로 앞선 후반 12분에 이어 후반 16분 연속골을 터뜨렸다.

이로써 손흥민은 챔피언스리그 3경기 연속골(5골)로 올 시즌 총 득점을 7골(프리미어리그 2골 포함)로 늘리면서 '한국 축구의 전설'인 차붐 전 국가대표팀 감독(총 372경기에서 121골)을 넘어 역사에 길이 남을 대기록을 작성했다.

손흥민은 만 18세인 2010년 분데스리가 함부르크 1군에 합류해 2010-2011시즌 데뷔한 이후 함부르크 소속으로 3개 시즌 동안 20골을 넣었고, 2013-2014시즌부터 바이어 레버쿠젠에서 2개 시즌 동안 29골을 넣었다. 2015-2016시즌부터는 잉글랜드로 무대를 옮겨 토트넘에서만 이날까지 총 74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의 활약에 토트넘은 즈베즈다를 4-0으로 완파했다. 손흥민의 이날 성적은 2골 1도움, 2승 1무 1패(승점 7)가 된 토트넘은 이날 올림피아코스(그리스)와의 홈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하고 4연승 한 바이에른 뮌헨(독일)에 이어 2위를 지켰다.

손흥민은 지난 4일 에버턴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상대 미드필더 안드레 고메스에게 발목 골절로 이어진 백태클을 해 정신적 충격에 빠졌다.

에버턴전에서 퇴장당한 손흥민은 잉글랜드축구협회(FA)의 3경기 출전 금지 징계까지 받았다가 토트넘의 항소로 퇴장과 그에 따른 징계가 모두 철회되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

즈베즈다전 출전 여부도 불투명했으나 손흥민은 빠르게 심리적 안정을 찾아가고, 결국 원정에 동행해 선발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은 후반 12분 델리 알리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어 개인 통산 122번째 득점을 올렸다. 득점 후 손흥민은 크게 기뻐하지 않고 고메스의 패유를 밟듯 두손을 모아 기도하는 세리머니를 펼쳤다.



손흥민(토트넘)이 6일(현지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라이코 미티치 경기장에서 열린 토트넘 베오그라드(세르비아)와의 2019-2020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B조 4차전에서 팀의 두 번째 골을 터뜨린 뒤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고 있다.

제주감귤국제마라톤 D-2 단체팀 소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완주할 것"

하귀일초등학교

올해로 3년째 제주감귤국제마라톤에 도전장을 내민 '어린 참가자'들이 있다. 하귀일초등학교(교장 윤정애) 마라톤 팀이다. 학생과 교사 등 약 40명으로 구성된 팀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한달 전부터 학교 운동장을 달리며 몸을 익혀왔다. 학생들의 도전은 전교생이 함께 하는 꾸준한 운동이 기반이 됐다. 하귀일초는 2014년부터 학교특색 활동으로 '아침사랑달리기'를 이어오고 있다. 교사와 학생이 매일 아침 운동장을 돌며 체력을 기르는 시간이다. 함께 운동한 시간이 쌓이면서 학생들이 직접 구성해 운영하는 자율동아리 활동도 활기를 띤다. 매주 수요일 방과 후에는

피구, 축구, 플라잉디스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 진행 된다.

하귀일초 마라톤 팀은 올해 대회에서 5km 전원 완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침사랑달리기 시간을 20분 늘리며 호흡을 맞췄다. 혼자 앞서나가기보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발맞출 예정이다.

강종한 하귀일초 교사는 "처음 1km 구간까진 모든 학생이 줄을 맞춰서 뛸 예정인데, 연습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고 있다"며 "다같이 뛰면서 학교폭력 추방과 건강한 등굣길에 대한 홍보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jieun@halla.com

제주 유도 꿈나무들 대활약 전국유도대회 메달 15개 획득

제주 유도 꿈나무들이 '2019 회장기 전국유도대회'에서 무더기 메달 사냥에 성공했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에 따르면 제주선수단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충남 보령종합체육관에서 열린 대회에서 메달 15개(금 8·은 2·동 5)를 획득했다.

제주선수단은 여자초등부에서 잇따라 금메달을 수확했다. -48kg급에서 홍규리(제주중앙초 6)가 정상에 오른 데 이어 -40kg급 강여원(동남초 6), -44kg급 신유미(서귀포유도관), -52kg급 강나은(서귀포유도관)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 중등부에서도 금메달이 이어졌다. 여자중등부에선 -52kg급 김민정(위미중 3)과 -70kg급 부유림(애월중 3)이 1위에 오른 데 이어 남자중등부에선 -51kg급 오상우(사대부



제주 선수단이 시상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 제공

중 2)가 금메달을 차지했다. 남자초등부 단체전에선 동남초의 이승현·홍승운·이지원·이재준이 활약하며 금메달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남자중등부 -51kg급 김수범(사대부중 2)과 여자초등부 단체전에 나선 동남초 강여원·최진미·문지현이 은메달을 땀다. 남자초등부 -60kg급 최우빈(납읍초 6)과 -60kg급 홍승운(동남초 6), 여자초등부 -40kg급 김하은(서귀포유도관)과 남자중등부 -45kg급 이준혁(위미중 1)은 동메달을 획득했다. 납읍초의 김동훈·김규원·김대홍·최우빈도 남자초등부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김지은기자

임성재 프레지던트컵 출전... "꿈 이뤘다"

단장 어니 엘스 추천 선수 "젊음의 패기 내세우겠다"



미국과 인터내셔널 팀의 골프 대항전 '프레지던트컵'에 출전하는 임성재(21·사진)가 "승리를 거둔다면 '내가 해냈다'는 세리머니를 한국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임성재는 12월 12~15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프레지던트컵에 출전한다. 인터내셔널팀 단장 어니 엘스(남아공)는 7일 추천 선수로 임성재와 호아킨 니만(칠레), 애덤 헤드윈(캐나다), 제이슨 데이(호주)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엘스 단장은 2019-

2020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인상적인 활약으로 신인상을 받은 임성재를 눈여겨 봤다고 밝혔다.

엘스 단장은 "임성재의 플레이를 지켜봤고, 페블비치(US오픈)에서 같이 경기할 때 임성재의 플레이 스타일이 마음에 들었다. 태도도 마음에

들었고, 배우려는 자세도 좋았다"며 임성재를 추천한 이유를 설명했다.

임성재는 "어렸을 때부터 나가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추천 선수로 선정돼서 너무 좋다. 미국 팀을 꼭 이기고 싶다"고 소감을 밝힌 뒤 "잘 치는 선수들이 많은데 저를 뽑은 엘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인터내셔널 팀에는 추천 선수 외에도 마크 리슈먼(호주), 파스야마 히데키(일본), 루이 우스트리즌(남아공), 애덤 스콧(호주), 에이브러햄 앤서(멕시코), 리하오통(중국), 판정중(대만), 캐머런 스미스(호주) 등 총 12명이 참가한다. 임성재는 "젊음의 패기"를 내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한국팀 3차전 상대 쿠바 호주와 연장 끝에 3-2 승

프리미어12 한국 야구대표팀의 3차전 상대인 쿠바가 호주를 꺾고 만만찮은 실력을 과시했다.

쿠바는 7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C조 조별리그 호주와 경기에서 연장 10회 승부처기 끝에 3-2로 승리했다.

캐나다와 첫 경기에서 패했던 쿠바는 이날 경기에서 승리해 1승 1패를 기록했고 호주는 전일 한국전에 이어 2연패로 고개를 숙였다.

2-2 동점에서 쿠바는 10회 초 무사 1, 2루 위기를 무실점으로 잘 막은 뒤 10회 말 공격에서 끝내기 희생타로 결승점을 뽑아 승리했다. 연합뉴스

	공인중개사 제주권설팅 ☎ 726-4585 / 010-8660-1263
	<p>와흘리 계획관리지역 창고 대지 2,100㎡ 창고 2동 64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좌읍 김녕리 4,300㎡(자연녹지, 맹지) 거로마을 주거지역 1600㎡ 남원 하례리 2300㎡(자연녹지(과)) 대정읍 무릉리 전 12,000㎡(계획관리지역) 법환동 2400㎡, 5000㎡ 해안도로 인근 (건축허가 특) 서귀포 강정동 2100㎡(자연녹지(과))

	동부공인중개사 ☎ 010-2800-4595 / 064-747-5115
	<p>신제주로터리 현일빌딩 3F 대표/공인중개사 부 문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도동 칼호텔동측 대 192㎡ 주택 80㎡ 3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안동마을 맹지 대 674㎡/매가 50㎡ 5억 해안동 생관아(목장) 맹지 28,842㎡ 6억 아라동기차촌 1090㎡ 9.24억 아라동기차촌 1090㎡ 9.24억 하례5.16도로동측과수원 8856㎡ 11억원 ※ 연동명주마을 신설2차선도로 점 168㎡ 3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애월수상봉저수지인근 카페용지 620㎡ 3.1억 봉성 시멘트도점 임야 842㎡ 6000만원 고성외고인근2차선전 대지조성 481㎡ 6.59억원 한림상명 조림식주택 60㎡/대 430㎡ 1.5억 관포 바다경관 과 자연녹지 3028㎡ 6.49억원 ※ 애월남읍자연취락지구 대지 410㎡ 1.65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문고인근 자연녹지 638㎡ 3.39억 조천해안도로인근 대지 502㎡ 3.35억 우도하고수동해수욕장인근 10,323㎡ 12.59억원 월정리 해수욕장 택지조성지 393㎡ 6.59억 김녕해안도로점 2474㎡ 15억원

본 광고는 사전심의필 2007-GN1-25-0147

← 광양 — 오라파출소 — 터미널 — 신제주 →

한국병원 — 소리샘 보청기

잘 안들리십니까?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와 함께 하십시오.

OC M-ITC ITC ITE

①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는 미국 스타키와 마이크로텍사의 제품을 취급합니다.

②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는 고객의 청력에 적합한 올바른 보청기 상담 및 A/S를 책임집니다.

■ 신경성, 노인성, 소음성 난청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무료 청력검사 및 방문 상담 가능

소리샘 보청기 TEL. 753-5347

제주시 삼도1동 507-3(2층)